

# '해양수산 기업 성장' 동반자 역할 특특

###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전국 종합 성과평가 '1위' 쾌거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가 전국 7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종합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도내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센터의 연간 운영 성과와 함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장 사례가 소개됐다. 창업 단계에서는 반려동물 식품 기업 '맘마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멍'을, 성장 단계에서는 지역 식품기업 '이고장식품', 고도화 단계에서는 수산 가공업체 '전이스산'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참여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고도화 단계까지 이어진 지원 과정을 소개하며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해, 내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센터의 성과를 돌아보고,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전국 평가 1위를 계기로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부터 성장, 고도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지역금융발전·사회공헌 공로 인정

### 전주삼천신협 최태일 이사장, 전북도지사 표창 수상

전주삼천신협 최태일 이사장이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삼천신협은 지난 16일 최태일 이사장이 서민금융 활성화와 건전한 금융거래 문화 정착,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전북 지역 금융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태일 이사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이사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북신협을 대표하는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초청해 '제3차 전북신협 리더스다이제스트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시작, 원대한 계획'을 주제로 전북 경제 발전과 성장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전주시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10월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시와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지역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 금융취약계층 복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농촌사랑 동행순찰'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최태일 이사장은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첨단 농업기술 융복합·사업화·국제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관협력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손을 맞잡고 민관협력 기반의 연구개발(R&D)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과 '민관협력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장과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연구개발 혁신과 성과 확산, 국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과 특구재단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타 산업 분야 첨단기술을 연계해 융복합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진흥청은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민관협력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미생물 혁신 허브 구축과 같은 전략 기술 중심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우수 연구 성과가 현장과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이전과 창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화 모델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국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학술·기술정보 교류와 자문을 확대해, 국내 농업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위성센터와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방문해 첨단 농업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 연구개발이 첨단기술과 결합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특구재단의 첨단기술과 기업 성장 전략을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농업과학기술과 접목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바이오 분야 유망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논의

전북테크노파크는 17일 전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2025년 제4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와 위기 징후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밀집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 지역의 원인 분석과 실태조사 항목 검토, 현장 심층조사 결과를 반영한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오상근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 갈등 봉합... 임단협 최종 타결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노사가 장기화됐던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로 했다.

LX공사(사장 이명소)와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위원장 위경열)은 지난 16일 본사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하며 임단협을 공식 타결했다.

이번 서명으로 노사는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공동의

출발을 선언했다. 앞서 노사는 임금협상 난항으로 노동조합의 장외 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큰 진통을 겪었으나, 지난 11월 4일 국적으로 합의안에 도달한 뒤 최종 서명을 완료했다.

LX공사의 이번 임단협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적축량 물량 감소 등으로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을 1%와 비용 절감 등 고통 분담 방안에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7일 전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는 최근 건설업계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책과 조달청 등록기준 사전점검제 도입 등

주요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건설공사 기성실적 및 재무제표 신고 요령 안내,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방법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통합 시스템 소개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안내 등 건설업체 운영에 꼭 필요한 실무 교육도 함께 병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8%가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R&D) 예산 복원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혁신 지원'이 5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미국 상호관세 피해 대응'이 40.9%,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등 금융환경 개선'이 28.7%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가 43.2%로 가장 많았고, '노동정책 유연화'(37.7%), '인력난 완화'(26.1%)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상근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